

기사입력 2016/11/11 20:11

인쇄하기

## 한인부동산협, 마크 홍 회장 선출



10일 열린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남승현 현 회장이 마크 홍 차기 회장(왼쪽에서 6번째)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고 있다. [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제공]

"회원 권익에 앞장서고 협회 위상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."

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(회장 남승현)가 지난 10일 LA한인타운 내 JJ그랜드호텔에서 "제 4차 정기이사회 및 28대 신임회장 선거"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마크 홍 부회장을 선출했다.

이사장에는 케니 조 전 회장이 당선됐다.

마크 홍 28대 회장 당선자는 "회장의 소임은 회원의 권익과 협회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게 기본적인 책무"라며 "내년에는 장학금과 비즈니스믹서 등 기본 사업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세미나 등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그는 이어 "한인 부동산 업계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것과 발맞춰 협회 규모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.

진성철 기자